

나는 팔복의 사람인가?

- 읽을 말씀 마 5:1-16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산상수훈 설교의 세 가지 초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팔복이 단지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묘사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팔복은 구원받은 신자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존 스토틀은 **“팔복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가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상세히 설명해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이드 존즈도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팔복이 전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널리 퍼진 거짓 구원론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로마서 10장 9-10절에 의거해서 신앙고백을 하고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팔복이 구원받은 자에 대한 묘사라는 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여부에 대해 **“당신은 팔복의 사람인가?”** 라는 필연적인 질문을 낳기 때문입니다.

팔복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것은 가능한 해석 중의 하나가 아니라 팔복의 의미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철두철미한 검증을 통해 배우고 확신하게 되면 그 말씀이 평생 우리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붙잡혀 진짜가 될 확률이 수직 상승합니다. 그래서 ‘팔복이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더 철저하게 확인하고 검증해 드리기 원합니다.

1) 마태복음의 문맥

산상수훈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일부이기 때문에 팔복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마4:17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을 때 많은 이들이 외면했지만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 중 일부는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얻었습니다(마4:17).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의 첫 번째와 마지막 복에서 그들에 대해 “...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팔복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팔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구원받은 사람을 묘사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이들이 자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팔복의 사람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설교자들이 회개를 외치지 않았고, 회중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오직 믿음” 이라고 하면서 믿음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막 1:15). 바울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두가 회개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이 초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였습니다(히6:1-2). 그러므로 산상수훈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회개의 절대적인 필요성입니다.

또한,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팔복의 사람은 단지 회개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믿은 자들입니다(막1:15). 이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입니다(마4:23). 천국 복음은 회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 들이고 그 뜻대로 살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목회자와 신자들이 천국 복음을 마치 과도기적인 복음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바울이 로마서를 쓴 후로는 칭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을 대신한다는 근거도 없는 막연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이신칭의” 라는 표현이 이런 착각을 더 부채질합니다. 이것은 미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세상 끝 날까지 천국 복음은 절대 폐해지지

않습니다(마24:14). 바울이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과 다른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더 구체화한 것입니다. 김세운 교수님은 「칭의와 성화」라는 책에서 **“바울의 칭의론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틀로 이해해야 왜곡함 없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제자들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지 못하셨고, 오순절 이후 성령님께서 12사도와 특히 바울에게 자세히 계시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핵심으로 한 칭의의 복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두 복음은 서로 다르고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복음을 전할 때도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 들이고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해야 합니다.

2) 복의 개념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행복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저주와 멸망을 받을 자가 아니라 현재적인 구원과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자라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팔복은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제자들” (마5:1)에게 그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축하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은 당연히 구원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사람들에게 현재적인 천국은 물론 미래의 궁극적인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묘사한 것이 맞습니다.

3) 팔복의 구조

팔복의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은 인클루시오 구조입니다. 이 구조의 특성상 두 번째에서 일곱 번째 복에 약속된 것들도 천국에 대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천국이 그 안에 있고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대한 묘사입니다. 따라서 팔복이 그리스도인을 묘사한 것이라는 견해는 성경적으로 매우 정확한 것입니다.

4) 학자들의 일치되는 해석

산상수훈에 관한 책들을 읽는 과정에서 아주 많은 학자들이 팔복을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표적인 신학자 아더 핑크는 **“팔복에서 주 예수께서는 그의 참된 제자를 구별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 설명하고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세운 교수님도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팔복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팔복의 사람이 아니라면 통렬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꼭 팔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 나눔과 적용

팔복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묘사한 것입니다. “ 나는 팔복의 사람인가? ” 라는 질문으로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하고, 나의 이웃들이 이 진리를 왜곡해서 알고 있을 때 어떻게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 전략들을 나누어 봅시다.